

앞으로 10명당 9명이 이용한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방송을 최근 들어서 처음 접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인터넷 방송을 이용할 의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최근 인터넷사이트 라이프넷(lifenet.or.kr)을 통해 네티즌 7,7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편집자)

O 번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을 처음 접한 시기가 2~3개월 미만이 21.7%, 1개월 미만이 17.4%, 4~6개월미만이 12.4%로 나타나 네티즌들 대부분이 인터넷 방송을 접한지 6개월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인터넷 방송의 이용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88.4%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여 앞으로 인터넷 방송 시청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는 시간은 21.3%가 저녁 8시에서 11시 사이이며, 오후 5시부터 8시도 13.4%에 달해 기존 공중파방송과의 시청시간대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 앞으로 인터넷 방송과 공중파방송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넷 방송에 접속하는 시간이 한 사이트당 10분에서 20분이 18.7%, 20분에서 30분이 17.5%, 5분에서 10분이 15.5%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91.6%가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비디오방송이 66.7%, 오디오방송이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네티즌들은 공중파방송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59.4%)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독립인터넷 방송이 21.9%, 포털사이트가 14.4%로 나타났다.

시청하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은 뉴스/교양이 28.2%로 가장 높았고, 오락/게임이 25.7%, 컴퓨터/인터넷이 16.4%, 문화/예술이 14.2%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학술/업무, 교육, 건강/의료 등의 전문정보들도 모두 합쳐 10%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터넷 방송에 대해 불만스러운 점은 '전송속도가 너무 느

리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38.5%, '화질과 음질이 나쁘다'가 21.1%, '화면크기가 너무 작다'가 12.4%로 나타나 인터넷 방송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인터넷 방송에서 보다 많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학술/업무에 대한 전문정보가 17.8%, 문화/예술이 13.8%, 컴퓨터/인터넷이 13.7%, 오락/게임이 12.5% 순으로 나타나 시청 행태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줬다.

'인터넷 방송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3%가 방송, 예술, 오락 등의 문화를 꼽았으며, 19.2%가 전자상거래 등의 경제를, 15.1%가 원격교육 등의 교육을 꼽았으며, 정치/사회 분야도 8.5%를 차지하여 앞으로 인터넷 방송이 사회 전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네트즌들은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네티즌들은 인터넷 방송을 방송서비스(21.8%)보다는 인터넷서비스(59.9%)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이 기존 방송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45.4%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20.6%만이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인터넷 방송 이용실태

(1) 플러그인 프로그램

인터넷 방송에 접속하기 위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으로는 리얼플레이어가 60.8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디어플레이어가 13.73%를 차지하여 이 두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74%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트랜드(1)

〈표 1〉 인터넷 방송 접속 빈도

항 목	응답자 수(명)	상대 비율(%)
1. 매일 3회 이상	418	5.39
2. 매일 1~2 회	890	11.48
3. 주 3~4 회	1,180	15.22
4. 주 1~2 회	1906	24.58
5. 주 1회 미만	2018	26.03
6. 무응답	1,342	17.31
총 응답자 수	7,754	100.00

〈2〉 인터넷 방송 접속 빈도

응답자의 82% 이상이 인터넷 방송에 접속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약 17%가 매일 접속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지 않거나 주1회 미만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43%에 이르는 반면 이 조사의 후원사들이 주로 인터넷 방송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인터넷 방송의 이용이 국내에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론된다.

〈표 2〉 인터넷 방송 1회 접속시 이용량

항 목	응답자 수(명)	상대 비율(%)
1. 5분 이내	829	10.69
2. 5~10분	1,201	15.49
3. 10~20분	1,451	18.71
4. 20~30분	1,357	17.50
5. 30분~1시간	1,029	13.27
6. 1~2시간	353	4.55
7. 2시간 이상	140	1.81
8. 무응답	1,394	17.98
총 응답자 수	7,754	100.00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인터넷 방송 1회 접속시 이용량을 산출한 결과 평균 26분으로 조사되었다.

주된 이용사이트

〈1〉 방송사이트 국적/방송 형태별 이용

인터넷 방송 이용자의 91.6%가 '국내 사이트'를 8.4%가 '국외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방송의 형태별로 보았을 때 '비디오 방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66.7%, '오디오 방송'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33.3%를 차지했다.

〈2〉 방송사이트 운영성격별 이용

최근 공중파방송국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독립인터넷 방송과의 경쟁이 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 사이트 운영 성격별 이용

순위	응답자 수(명)	상대 비율(%)
1. 지상파방송 사이트	3,769	59.36
2. 독립인터넷 방송 사이트	1,392	21.92
3. 포탈 사이트	917	14.44
4. 기타	271	4.28
총 응답자 수	6,349	100.00

〈3〉 방송사이트 내용별 이용

뉴스/교양, 오락/게임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편 컴퓨터/인터넷, 경제, 학술/업무, 교육, 건강/의료 등의 전문화된 정보에 대한 이용도 높게 나타난다.

〈표 4〉 방송사이트 내용별 이용

순위	응답자(명)	비율(%)
1. 뉴스/교양	1,795	28.20
2. 오락/게임	1,638	25.73
3. 컴퓨터/인터넷	1,044	16.40
4. 문화/예술	906	14.23
5. 경제	273	4.29
6. 학술/업무	212	3.33
7. 교육	169	2.66
8. 건강/의료	41	0.64
9. 기타	287	4.52
총 응답자 수	6,365	100.00

인터넷 방송 이용자 만족도

〈1〉 인터넷 방송에 대한 만족/불만족 사항

인터넷 방송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보통(43.16%), 약간 만족(17.64%), 약간 불만족(15.42%) 등 대체로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존방송에 비해 만족스러운 점으로는 원하는 콘텐트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꼽았으며 불만족 사항으로는 전송속도가 늦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불만족 사항의 경우 내용보다는 주로 기술적 한계를 지적한다.

〈표 5〉 인터넷 방송 콘텐트 요구 사항

만족사항 순위	비율(%)	만족사항 순위	비율(%)
1. 원하는 콘텐트 선택	35.94	1. 전송속도가 느림	38.53
2. 업무중 시청 가능	17.18	2. 화질과 음질이 나쁨	21.14
3. 요구시점 전송	13.59	3. 화면크기가 작음	12.35
4. 전세계 방송 시청	9.83	4. 콘텐트(내용)가 희약	5.17
5. 기타	4.26	5. 방송물 검색이 난이	4.41
6. 무응답	19.20	6. 무응답	18.39
총 응답자 수	100.00	총 응답자 수	100.00

〈2〉 인터넷 방송 콘텐트 요구 사항

현재 인터넷 방송에서 주로 시청하고 있다고 답변한 뉴스/교양

은 약 9%에 그친 반면 학술/업무에 대한 전문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인터넷 방송에서 기존방송보다 전문화, 다양화된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표 6) 인터넷 방송 콘텐트 요구 사항

순위	응답자(명)	비율(%)
1. 학술/업무	1,377	17.76
2. 문화/예술	1,072	13.83
3. 컴퓨터/인터넷	1,059	13.66
4. 오락/게임	970	12.51
5. 뉴스/교양	685	8.83
6. 교육	406	5.24
7. 경제	361	4.66
8. 건강/의료	201	2.59
9. 기타	221	2.85
무응답	1,402	18.08
총 응답자 수	7,754	100.00

인터넷 방송에 대한 인식

(1) 인터넷 방송 인지정도

응답자들은 인터넷 방송에 대하여 대부분 보통 이상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인터넷 방송 인지 정도

순위	응답자 수(명)	상대 비율(%)
1. 잘 알고 있다	1,291	16.65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073	65.42
3. 아는 바 없다	1,389	17.91
4. 무응답	1	0.01
총 응답자 수	7,754	100.00

(2) 인터넷 방송의 성격 규정

인터넷 방송을 분류하자면 방송서비스와 인터넷서비스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59.89%가 '인터넷서비스' 쪽이라고 응답한 반면 '방송서비스'에 가깝다고 응답한 사람은 21.76%에 불과하다.

(표 8) 인터넷 방송 성격

순위	응답자 수(명)	상대 비율(%)
1. 방송서비스	1,687	21.76
2. 인터넷서비스	4,644	59.89
3. 무응답	1,423	18.35
총 응답자 수	7,754	100.00

(3) 기존 방송 대체 가능성

더욱이 인터넷 방송이 기존방송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5.4%가 긍정적으로, 20.5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요컨대 인터넷을 통해 실시된 본 조사의 응답자들

은 인터넷 방송을 인터넷서비스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기존 방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기존 방송 대체 가능성

순위	응답자 수(명)	상대 비율(%)
1. 기존방송을 대체할 것	3,520	45.40
2. 기존방송을 대체하지 못할 것	1,596	20.58
3. 알수 없음	1,210	15.60
4. 무응답	1,428	18.42
총 응답자 수	7,754	100.00

(4) 향후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

인터넷 방송 이용자들은 인터넷 방송이 단순히 문화적 매체로써 뿐만 아니라 경제나 교육, 정치, 사회의 전분야에서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로 기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표 10)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

항목	응답자(명)	비율(%)
1. 문화	2,192	28.27
2. 경제	1,490	19.22
3. 교육	1,171	15.10
4. 정치/사회	661	8.52
5. 학술/업무	500	6.45
6. 의료/건강	144	1.86
7. 행정	41	0.53
8. 군사	34	0.44
9. 기타	126	1.62
무응답	1,395	17.99
총 응답자 수	7,754	100.00

(5) 향후 인터넷 방송 이용 의향/거부 이유

향후 인터넷 방송을 이용할 의향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88% 이상이 긍정적으로, 11.62%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와 같이 잠재적 시청자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인터넷 방송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접속불안정 또는 이용방법의 어려움 등을 지적한다. 즉 인터넷 방송에 대한 기술적·교육적 솔루션의 개발이 요청된다.

(표 11) 인터넷 방송 의향 거부 이유

순위	응답자 수(명)	상대 비율(%)
1. 접속이 불안정	356	30.12
2. 이용방법을 모름	238	20.13
3. 기존 매체로도 충분	189	2.44
4. 내용이 이해되지 않음	95	8.03
5. 기타	304	25.73
총 응답자 수	1,182	100.00